작은 무역대국 그리고 선진국(善進國)

金 鎭 炫 / 文化日報社長 · 未來學者

대국과 무역

대국 또는 중심국, 기축국이라는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확실한 공통점은경상수지의 흑자국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 그러하다. 고대의 페르시아, 그리스로부터로마, 당(唐), 한(漢), 몽고, 아라비아, 그리고 근대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모두 그러하다.

좀더 체계적으로말하면 모든 대국 중심국, 기축국의공통점은첫째, 거의 예외없이대무역국이며둘째, 대국이 되기까지 그리고 대국이 된 후에도 상당기간 무역수지에서압도적 흑자국이며셋째, 이런 압도적 흑자를 기조로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다 이런 압도적 무역흑자를바탕으로군사력이 강성하며 대개 이런 경제군사력을바탕으로 당시의 다른 지역 또는 과거와 다른 보편적 체계나 질서를 만들어낸다.

PAX China, PAX Romana, PAX Britanica, PAX Americana 등이라는명칭이그런 것이다.

자세히 보면 이런 대국의 경제적 조건에서도대국, 무역대국의경우 일정기간(시간의 길이에는차이가 있지만)이 지나면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된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에도불구하고무역흑자시절에 축적해 놓은 자본, 자산 축적으로 해서 기축통화국, 무역대국으로서의역할은 일정기간지속된다.

그러나 무역수지가적자로 반전되면 일정기간 뒤 반드시 대국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거기에는몇가지 까닭이 있다. 첫째는 무역수지적자의 지속에도불구하고일단 높아진 생활수준으로인해서 수입억제가불가능하여무역흑자반전이 어렵고, 둘째 이런 무역적자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자본과 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본투자 수익 또는 기술 특허료 수입 등 비무역거래흑자가 계속되는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와 무역대국, 경제대국 유지와는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셋째 그러나 상당

한 시간이 흐르면 무역외수지에서도적자가 발생하면서경상수지 전체가 적자로 돌아서고 넷째는 기축통화국으로서부담, 즉 경제블록의맹주로서 블록전체의안정 또는 리더십 유지(경제능력을넘는 군사비 유지 또는 전쟁 주도)라는 비경제적 부담으로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무역외수지모두 적자를 강요받게된다.

이런 순환과정을거치면서 무역대국, 경제대국, 한 블록의 정치대국은성(盛)을 마치고 쇠(衰)로 낙하한다.

이 과정에는 많은 변형이 있다. 무역흑자도많이 내고 전세계적인지배권을확장했으면서도 국부의 장기적 관리에 실패했거나, 또는 무역과 경제블록 형성에는 성공했으나 보편적 질서나 체제를 확립하는데 실패하여단기간의 제국으로끝난 경우도 많다. 스페인과 몽고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이다. 가장 전형적인성공의 경우는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은 18세기말 이후 20세기초까지무역흑자를유지하다 적자로 반전했으나무역외수지흑자로 경상수지는계속 흑자였으나1940년대부터 경상수지마저적자로 돌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미국에 양보하게됐다. 또한 미국도 19세기말, 20세기초부터무역수지가흑자로 돌아서고 1960년대 들어서부터무역수지는적자였으나경상수지는흑자를 유지하다 1970년대부터 경상수지마저적자로 반전되면서 "G7 "시스템으로세계경제운영이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1985년 플라자협정이후 「일본의세기」를 구가하며 세계제일의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했지만통화와 자산관리에모두 실패하여 " 준대국 ","의사(擬似)대국 "으로만 머물기도한다.

반대로 대국이 아니면서, 대국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무역수혜국이며, 기축통화국이아니면서도가장 신용과 가치높은 통화로 대접받는 나라도 있다.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등이 그러하다.

이들의공통점은무역대국, 기축통화국들보다국민경제에대한무역의비중은월등히높다는것이며또한 인구나무역량은무역대국, 기축국가에비하여월등히작지만전세계를향하여전달하는그리고전세계가매력을갖게하는확실한가치를보유하고있다는것이다.

스위스는영세중립 · 세계적십자운동으로 상징되는 " 세계평화, " 국제분쟁중재센터 "라는 확고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기구, 국제기구들의본부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기도하다. 바다가 없으면서도세계를 향하여 가장 보편적 가치, 즉 세계적 평화의 가치와 상징을 발신하고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특화된 기술, 정밀화학, 정밀기계, 환경기술제품, 세계적 브랜드의 식품들로하여 스위스는항상 영원

한 무역국가, 영원한 무역흑자, 영원한 경상수지 흑자국이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는 둘다 스위스에 비견할 만한 세계적 가치의 발신은 없으나, 네덜란드는 라인강을 따라 유럽 내륙을 배후지로 하는 세계적 무역항으로서, 싱가포르는 동남아를 배후지로 하는 세계적 무역항으로서, 즉 지리적 위치를 가장 선용, 활용하는 " 세계적 중계무역기지 "로서 가장 효율적인 유통센터라는 가치를 발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역시 무역, 무역외수지 모두 장기적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작은 무역대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은 두 말 할 것 없이 「대국적 무역대국」이 아니라 「작은 무역대국」이 돼야 한다.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무역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 첫째는 지경학(地經學)적 조건이다. 중국, 일본, 시베리아라는 거대한 배후지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가 약 4억이라는 ASEAN을 배후지로 갖고 있고, 네덜란드가 라인강을 중심으로 약 2억의 알프스 이북의 유럽 대륙을 배후지로 가졌다면 한국은 황해, 동해를 연해 사는 약 14억의 삶의 터를 배후지로 가진 셈이다. 이 14억은 이미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기지가 되었고 5년내 세계 최대 통신 인터넷 소비기지가 될 세계 최대 경제활동 배후기지를 가진 셈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경학은 대륙문화나 산품이 해양으로 가는 경로이거나 해양문화나 산품이 대륙으로 가는 경로로만 여겨 왔다. 경유지는 통과지일 뿐 그 경유하는 문화나 산품에 대한 가치부여가 결여돼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이 14억 삶의 터를 배후지로 하여 단순한 경유, 통과 역할이 아니라 세계 최대 경제활동 지역을 기지로 14억의 삶을 위한 문화와 산품의 가공, 가치부여의 기지가 된다면 우리는 확실히 작은 무역대국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지정학적 조건이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의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반도로서 내륙의 대륙세력과 세계 최대의 바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해양세력이 만나는 반도이다. 세계 최대 대륙과 세계 최대 대륙세력, 그리고 세계 최대 해양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이 한반도이다.

근대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곳이며 2차대전 후 냉전기에는 세계 최대 Hinterland인 러시아(USSR)와 세계 최대 해양세력인 미국이 맞붙은 곳이었다. 몽고의 일본 진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진출 시도와 명(明)의 한반도 분할시도, 19세기말 이후 일본의 만주, 중국 침략과 러시아의 남방해로개척,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분

할시도, 1945년 이후 미국과 USSR의 한반도 분단 점령. 이러한 일련의 최대 대륙 세력과 최대 해양 세력간의 교차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요, 지금까지 한반도 비극의 원천이었다.

그리하여 한반도라는땅은 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전쟁의 터, 우리 이해와 무관하거나 반(反)한 전쟁터가됐다. 정작 전쟁당사자들자신의 땅에서 싸워야 할 전쟁을 남의 땅, 즉 한반도를 대토(代土) 삼아 전투를 벌였거나 정작 대륙세력과해양세력 당사자 병사들이 싸워야 할 전쟁을 대리(代理)하여 우리 민족이 징용당하거나용병으로전장으로가거나, 우리 민족끼리싸우는 대리전쟁의비극이 거듭되어왔다.

세계최대 대륙세력이중국, 몽고, 러시아로 바뀌어 왔고 세계최대 해양세력이 영국과 합작한 일본(근대), 미국으로바뀌어 왔고 미국과 합작한 일본으로바뀔 수도 있다. 21세기에는 중국과 미국(또는 미국+일본)으로 교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세계최대대륙세력과세계최대 해양세력의교차점, 접점으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접점하는이 세계최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대립, 갈등관계로있는 한, 반도로서의한국의 지정학적 비극은 해방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비극에서해방되려면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의 관계가 화해 · 평화관계로바뀌거나 우리의 능력이 이들의 갈등 · 대립관계에서 중립적이거나양자 모두가 우리를 " 절실히 " 필요로하는 존재, 독립 중립자적 존재(지금까지와 같이 代土, 代理人적 존재로서 하수인(下手人)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로 격상하여야한다. 한국 독자적으로는세계최대 대륙, 해양 어느 세력에도못 미치지만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면 결정적으로다른 한편의 균형이 깨지는 그러한 임계점(臨界點) 결정의 나라가 돼야 한다.

선진국(善進國)으로 가는 길

우리는 작은 무역대국이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이 있다. 그리고 또한 세계최대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균형결정자가돼야 하는 지정학적필요 속에 생존하고있다.

이를 충족시키는길이 " 선진국(善進國) "으로의 길이다. 선진국(先進國)이되 선(善)진국이어야하는 길이다.

선진국을 지향하되 제국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며 힘있는 나라를 지향하되 강성대국,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으며, 무역대국이되 대국적, 맹주적 무역대국이아니라 작은 무역대국이며 산업대국이되, 중후장대(重厚長大)의 산업대국이 아니라 경박단소(輕薄短小)의 산업대국이다.

강(强)과 경(硬)과 양(量)과 규모(規模)의 길이 아니라 선(善)과 연(軟)과 질(質)과 격(格)의 길이어야 한다. 공해대국, 군사강국, 자원소비대국이 아니라 환경모범국, 교육대국, 문화예술우월국, 정보연구중심국, 도덕신용모범국이어야한다.

> **우리는 작은 무역대국이 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이 있다. 그리고 또한 세계최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균형 결정자가 돼야 하는 지정학적 필요 속에 생존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는 길이 "선진국(善進國)"으로의 길이다. 선진국(先進國)이되 선(善)진국이어야하는 길이다.**

성(省)자원, 성(省)에너지, 성(省)수송, 성(省)공간, 성(省)노동, 성(省)공해, 성(省)쓰레기, 성(省)소비, 성(省)자연이라는새로운 문명과 삶의 패러다임을찾고 창조하는 것이다. 작은 무역대국이되는 길은 14억의 배후지에 단순히 상품과 물류의 경유지가되는 것이 아니다. 14억의 삶에 필요한 상품과 물류를 교류하고14억 세계최대제조업센터가생산하는상품을 세계로 공급하는중계센터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유, 중계의 단순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에 성자원, 성에너지, 성수송, 성공간, 성노동, 성공해, 성쓰레기, 성소비, 성자연의 새 가치, 새 기준, 새 패러다임을투입하는 창조적, 혁신적 매개 기능을 더하여야만가능하다.

세계최대 대륙세력과세계최대 해양세력간의대립, 대결 전쟁이라는절정의 상징이 바로 한반도의 휴전선이다. 이 휴전선의 비극과 역설, 유례없는세계대국끼리의대토(代土), 대리인(代理人) 전장으로서의비극, 그러면서도철저한 인간끼리의대립, 대결, 분단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있는 휴전선의 평화와 자연보존 여기서 스위스와 같은 세계적 보편의 평화가치, 평화상징을창조해내야한다. 그것이 선진화(善進化)의 길이며 21세기판 세계적십자운동 21세기판 지구촌평화운동의원형이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비극을 소화, 초월하려는노력에서나온다.

우리가 꼭 「작은무역대국」이 되어야하고 세계 정보 중심국가로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진화(善進化)의 길이고 한국의 지경학적조건에 충실하고지정학적 비극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이다. V&S